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용용 편집: 양재웅

십자가로 2009년을 돌아보며

복음으로 2010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중 (롬 1:1)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09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십자가의 복음, 월요일에는 메시아의 복음,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금요일에는 로마서의 복음 등, 매일 매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만을 말씀하셨지만 때면 우리의 초점은 '세상적'에 있었습니다. 지나온 것들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흔적들뿐이며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행 8:22).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좋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골 2:14).

지난 달, 아니 바로 조금 전까지도 죄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할 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크고 넓은 품이 있습니다(요 7:37-38). 얼마 남지 않은 2009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보혈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뿐입니다. 또한 2010년을 위한 우리 계획의 처음과 끝도 십자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막 1:1). 복음으로 포장한 나의 의, 나의 꿈, 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오직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무릎 꿇기 원합니다(엡 6:18).

2009년 은퇴자 시상, 다음 주일(13일) 찬양예배 시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나 너희도 상을 받으실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비록 시무직분자는 아닐지라도, 주님 다실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날 많이 오셔서 은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은퇴자 명단은 본지 7면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
성령을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1~4)

로마서 8장은 5-7장의 배경이 되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룬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근거는 영(Spirit)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능력이다. 7장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다. 율법에 관한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다(롬 7:25). 바울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롬 8:1).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롬 7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롬 7:4). 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죽었고(롬 8:10),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갈 2:19-20).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온전하고도 완성된 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의로움은 모든 심판과 죽음을 제하여 버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8장에서도 대대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진노, 죄,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를 모두 종합하여 쓰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정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한다.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 법을 대조하였다(롬 8:2).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이나 도덕적인 관념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새로운 질서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새로운 법 또는 질서는 무엇인가?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롬 8:9,1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된다(고전 3:16).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며 아버지께 부를 수 있다(갈 4:6).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롬 8:14).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며 성령 안에 살고 성령님과 동행한다(갈 5:18,25). 자연인의 삶이 육신 안에 사는 것처럼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보증하여 주신다(고후 1:22).

생명의 법이다 옛 세계에서 죽음이 왕 노릇했는데, 새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장한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므로 성령과 생명은 즉시로 함께 간다(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는 예수께서 죄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고후 3:6).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며 영으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법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세계, 새 생명, 새 법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질서가 마침내 우리를 옛 세상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다스린다(롬 8:3). 하나님은 우리의 문체와 육신(Sinful flesh)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저주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진노, 죄, 율법 아래 계셨다(갈 3:13, 4:4-5; 고후 5:21).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을 내어 주셨다(히 2:14).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 때문에 힘을 얻어 인류를 통하여 사망을 내어 쫓으셨다. 이제 이전에 우리를 주장하던 죄와 율법과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거나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계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후 5:17).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세계, 성령이 주장하시는 새 질서 안에 놓여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롬 8:4). 아멘.

JOSEPH'S HOLY DREAMS

⁽¹⁸⁾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as follows: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 ...

⁽²⁴⁾And Joseph awoke from his sleep and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as his wife,

⁽²⁵⁾but kept her a virgin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Matthew 1:18~25)

⁽¹³⁾Now when they had gone,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Joseph in a dream and said,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flee to Egypt, and remain there until I tell you;

for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destroy Him." ... ⁽²³⁾and came and lived in a city called Nazareth,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s: "He shall be called a Nazarene."

(Matthew 2:13~23)

As Christmas approaches, Christians focus on the meaning, power, and greatness of Jesus Christ's birth. His coming into this world was miraculous. God used many people and methods to usher in His plan of salvation. Today's beautiful Bible passages reveal four holy dreams that Joseph, the earthly father of Jesus, received from God concerning the birth and upbringing of Jesus. Joseph was unaware of the role he would play in God's wonderful blessing of grace. His faith in God shines through his life's story. He truly believed in God and the miracle of Christmas. Let's look at Christmas through Joseph's holy dreams.

Joseph was a poor carpenter engaged to a girl named Mary. His dreams for the future were happily centered on God, his family, and work. When he found out that his wife-to-be was pregnant, and he knew for a fact that he wasn't the father, he was certain that he needed to end his engagement. He loved Mary, and he knew that under Moses' law she could be stoned to death. Not wanting harm to come to her, he began thinking of ways to hide her shame,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as follows: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 And Joseph her husband, being a righteous man and not wanting to disgrace her, planned to send her away secretly" (Mt. 1:18~19). Joseph had a big problem that wasn't supposed to happen to him. He wanted to break up with Mary, and started thinking about secret ways to do it so that no one got hurt. In the midst of his suffering, as he lay down to sleep for the night, God sent him a message in a dream.

The first holy dream that Joseph received from God was very hard to believe. As he was considering ways to secretly handle Mary,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e Child who has been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20~21). In just one dream, Joseph believed it. The Bible says, "And Joseph awoke from his sleep and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as his wife, but kept her a virgin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Mt. 1:24~25). Can you believe it? Do you realize how much faith he needed to believe it? Mary's special pregnancy was foretold by the prophets,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Mt. 1:23). Joseph could never

have even imagined that he and Mary were to be the blessing parents of Immanuel.

The second holy dream that Joseph received from God was difficult to obey.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and visited by the magi from the eas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flee to Egypt, and remain there until I tell you; for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destroy Him" (Mt. 2:13). Joseph was a poor man. Now, he was responsible not only for Mary and himself, but also for the heavenly Infant. He was being asked to travel to another country with a new mom and God-baby. It was a long journey from Bethlehem to Egypt, and he had no idea how long they would need to stay there. The Bible says, "So Joseph got up and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while it was still night, and left for Egypt. He remained there until the death of Herod. This was to fulfill what had been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Mt. 2:14~15). King Herod came down to Bethlehem and killed all the male children of Israel ages two and under, which was prophesied by Hosea(Hos. 11:1) and Jeremiah(Jer. 31:15). Joseph's faith and obedience kept his family safe.

The third and fourth holy dreams that Joseph received from God, he also believed and obeyed. The Bible says, "But when Herod die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in a dream to Joseph in Egypt, and said,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go into the land of Israel; for those who sought the Child's life are dead.' So Joseph got up,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came into the land of Israel" (Mt. 2:19~21). Joseph listened and brought Jesus and Mary back to Israel. He heard that Herod's son, Archelaus, was reigning over Judea and he was afraid to go there. The Bible tells us, "Then after being warned by God in a dream, he left for the regions of Galilee, and came and lived in a city called Nazareth.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s: 'He shall be called a Nazarene'" (Mt. 2:22~23).

Our great Messiah, Jesus Christ, came into this world as our Savior. He was born to die on a cross for our sins. Through Joseph's strong faith and obedience, God sent him dreams to fulfill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prophecies. What wonderful dreams that Joseph believed them and practiced his faith. It is my hope that you and I can finish our time here on this earth with great faith and in compliance with God's Word. May our dreams this Christma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s leading, and may each one of us practice our faith in obedience to God's will. Amen. 

【 다음 주일 설교 】

요셉의 거룩한 꿈들

⁽¹⁸⁾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²⁴⁾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²⁵⁾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를 하니라

(마태복음 1:18~25)

⁽¹³⁾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 ⁽²³⁾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13~23)



김성관 목사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긴 있는 의미와 권능, 위대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 많은 사람과 방법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꾸었던 네 번의 거룩한 꿈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양육에 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축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의 일생에 걸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거룩한 꿈들을 통해 크리스마스에 대해 살펴보고 원합니다.

요셉은 문제에 직면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소녀와 약혼한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가족, 일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약혼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사랑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셉은 그녀의 수치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마 1:18~19).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기를 원했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싸인 채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민기 어려운 꿈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거룩한 꿈은 정말로 민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리아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0~21). 단지 한 번의 꿈으로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를 하니라"(마 1:24~25).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요셉은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마리아의 특별한 잉태는 선지자들에게 의해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요셉은 자신과 마리아가 임마누엘의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꿈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거룩한 꿈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후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말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마 2:13).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리아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돌보아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출산한 산모와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먼 여행이었고 그곳에서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2:14~15).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내려와 두 살부터 그 아래의 사나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 호세아(호 11:1)와 예레미야(렘 31:15)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그의 가족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고 순종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거룩한 꿈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마 2:19~21). 요셉은 주의 말씀을 청종했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는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마 2:22~23).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의 굳센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에게 현몽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신비한 꿈들을 믿었고 그의 믿음을 실천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꿈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12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2)

지만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도 기록되어 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모든 사람에게 외면과 멸시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부각하였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도들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누가는 사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누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강조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자. 누가복음 23:26~49 말씀은 마가복음 15:20~41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서로 고난과 죽음을 서술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 23:26~27 말씀과 마가복음 15:21~22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누가는 시몬에 대해 구레네 사람이란 것만 언급했을 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애통해하며 따라갔다고 기록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슬퍼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음을 밝혔다(눅 23:47~49).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후에 그가 역지로 십자가를 져고다 밝혔을 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다.

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심판의 경고를 반복해서 하셨다(눅 11:49~50).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포장된 유대인들의 외식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이다(눅 19:41~45).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때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눅 21:20~24).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계속되었다. 그들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중보하셨던 것이다(눅 23:34; 행 3:17, 7:60). 또한 십자가에 달린 한 편 강도의 회개에 즉각적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응답하셨다고 하셨다(눅 23:42~43). 이것은 십자가에 상에 처될 때까지 외치며 죽음을 맞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기록과 대조를 이룬다(막 15:34, 37).

누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예수님을 아람답게 기록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지만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하며 외면할 뿐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 무명의 사람들, 어딘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눅 23:47~49).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연약하셨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유익이 없기에 십자가를 멸시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자! 우리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당장 고통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시 22:2, 31:6). 날마다 '나'라는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 있어야 한다(눅 23:46).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져가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대주 원오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1부메 메시자(2009. 12. 2)

세례 요한의 탄생은?

(누가복음 1:13-17)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기적이다. 이 기적의 메시자를 누가는 잘 정리하여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자다. 즉 복음의 메시자를 전하기 위한이었으며,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이었다(눅 1:1~7). 세례 요한의 탄생도 평범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처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사 40:3~5, 9). "요한" (우회, 천둥)이라는 이름도 주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눅 1:13~14, 17). "요한의 탄생은 기적이다"

● **홀륭한 부모** 세례 요한의 부모는 기도하는 홀륭한 부모였다. 신실한 제사장 이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다(눅 1:5~6). 더군다나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에 많았다(눅 1:7). 이와 같이 임신과 출산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눅 1:11~13). 세례 요한의 부모가 홀륭한 이유는 주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신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랬다. 구약의 예언과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탄생했다.

● **요한의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였다. 이와 같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 선지자는 분명히 밝혔다(말 3:1, 4:5~6). 세례 요한

에 관한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다(사 40:3~5; 눅 3:2~6). 세례 요한은 철저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알리는 "방아쇠 소리"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눅 3:29). 수많은 제자들을 자살을 깨달 때에도 세례 요한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만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눅 3:16). 세례 요한이 전한 설교의 결론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선포되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탄생했다.

● **주님은 요한을 언급하신다** 신봉고화를 가지지 않고 죄를 지쳐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은 결국 해롯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도하고 생각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질문했다. "이질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요이까"(눅 7:19). 이 질문에 예수님은 즉시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답하셨다(눅 7:22~23; 사 35:4~6). 믿음이 흔들렸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 죄인이라는 성경의 진리(롬 3:23)를 되새기게 된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회개만 청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임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해 언급하시며 밝혔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라 하시니라"(눅 7:27~28).

놀라운 과정을 거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이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흔들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세례 요한에게는 기도하는 홀륭한 부모가 있었으며, 세례 요한의 설교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가 됨을 의심하였다. 이처럼 연약하고 죄 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죄의 흔적만 남을 것이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자.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비천하게 보이는 말구유로 나아가자. 아멘.

2010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의 한 걸음



진홍웅 (철로, 담회서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으로 2009년을 시작한 지가 엿그레 같은 데 벌써 201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9년은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크고 굴직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우리는 놀란 가슴을 움켜잡아야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계속 들리는 크고 작은 전쟁 소식들을 비롯해서 기근,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들은 이제 일부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임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 발병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신종플루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질병 또한 우리를 근심과 걱정애 빠뜨리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3~4).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합시다

2010년에도 매일, 매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무지한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녀(요일 3:10)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자녀이거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는 말씀을 꼭 기억하여 회개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경험과 지식,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전통을 앞세울 때 우리는 복음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마

26:39).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빌 3:8). 죄뿐인 우리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요 3:36). 그런데 이처럼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벧후 3:17).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살전 4:13~17).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요 14:3).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도구가 됩시다

2010년에도 우리 교회는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나아가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예배실에 착석하여 주심시오, 천국일꾼들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양성되도록 20개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내전도와 단기선교에 필요한 조건은 '믿음'입니다(롬 10:17).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소외된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데 더욱 열심을 품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 속한 유지·복지 재단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운영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납골시설, 양로원 및 합암 총현농원 개발이 모두 복음의 열매(롬 6:22)가 맺어지도록 합력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도구는 특징인이 아닌 총현의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도구가 됩시다!

2010년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매순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몇몇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연합(시 133:1)하여 일심(一心)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보(一步)하기 원합니다.

2009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가장스런 모습에서 돌이켜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이 잘못된 게 뭐 있냐고 대들고,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가장스런 모습과 같이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은혜의 말씀이 저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지 않는지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은혜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한 은혜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에스겔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중심,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기도제목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금강석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 꼭 스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경혜(집사, 13교구)

예수님만이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말씀이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분노의 자리에서도,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또 요동치는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할 때에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나의 정욕과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내 삶의 소망이며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김은정(집사, 17교구)

회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욕심으로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요한 서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그 어떠한 것보다 귀중한 보배임을 깨달았다. 불갈

*교육훈련원에서는 매년 전·후반기 2회에 걸쳐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양한 강의를 개설합니다. 2010년도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교육국, #473)

은 시합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자라서 다른 이들을 굳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게 한다. 또한 사탄, 이단, 거짓 선생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므로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 남심 같 겠은 말씀에 부어지는 보혈의 은혜로 복음을 바로 전하자고 다짐해 본다.

유영권(만수집사, 15교구)

어려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나는 다니엘이 지혜와 경건함을 겸비한 투철한 신앙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포로 된 자로서 유혹적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용하며 많은 영적 고통을 당하였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여호와와 종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녔고, 성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됨을 깨달았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한다.

김미연(집사, 13교구)

주님만이

양성부의 시작은 동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우리를 일만만 물가로 인도하셨다가 긴장이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셨다. 출발점부터가 하나의 스토리를 이뤘다.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찬양대원 양성이라는 스토리가 완성됨을 알 수 있었다. 자그마한 완성이지만 주님이 동행했던 소명의 언덕이었다. 찬양이라는 소명은 가슴 깊이 느껴지는 기쁨이요, 감사다. 십자가 아래서도, 부활하셔서 심판하실 심판 주 앞에서든, 나는 노래하고 싶다. 끝없이 찬양하고 싶다. 주님을... 주님을... 그 분만이 내 모든 소망이요, 생령 되신다고.

김광근(집사, 6교구)

증인들의 함성, “예수, 아멘!”

다시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역 내내 애어컨 없이 차의 창문을 열고 시내에서는 때연과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면서도 불편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현지상황에 적응하는 팀원들이 감사할 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산을 넘고 넘어서 농촌과 들판, 아니 드넓은 초원의 한 목동에 이르기까지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며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최경연(만수집사, 10교구)

복음을 들고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선교를 하였다. 한 임산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복음을 전했다. 영접기도를 마치고 나니 그녀는 나를 붙들고 뱃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 간절함 그녀의 마음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한국말로 “기도해도 될까요?”라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을 다해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열매는 아유움과 고마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며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의 도구로 쓰심에 감사했다.

황원준(집사, 21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화) - 12월 16일(수)	24교구 6팀	박민호
12월 8일(화) - 12월 17일(목)	3교구 2팀	이찬재
12월 9일(수) - 12월 17일(목)	24교구 5팀	왕순화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일(화) - 12월 9일(수)	13교구 3팀	김철남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25일(수) - 12월 3일(목)	14교구 3팀	김준광

2009년 은퇴자

"나는 산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장 로 노영한(82-508) 박철규(3025) 이종석(552) 최지운(1619) (4명)

안수집사 권 철(83-316) 김희선(88-409) 안병호(84-1325) 안영성(85-724) 이기숙(91-799) 이흥현(82-578) 정철석(91-616) 최남하(5083) 최대환(91-1028) 황학규(5098) (10명)

권 사 강정일(84-736) 강정희(90-433) 김군자(1419) 김연단(85-883) 김옥기(86-108) 김숙순(89-575) 김정수(88-153) 민정순(97-542) 박순옥(1832) 백영희(2719) 변경희(3727) 신경순(2687) 안경자(88-717) 원길자(59) 윤옥자(5271) 이문구(84-1364) 이순현(92-121) 이오목(1096) 정금순(86-306) 정수영(80-244) 조분자(155) 최영옥(95-1030) 최정호(5329) (23명)

은퇴자 시상 12월 13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찬양예배 30분 전에 예배 연습이 있으므로 은퇴 시상자는 본당 앞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양육부 11월 수료자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

✚ 결혼해 먹고 살기 바빠 교회 다니기를 미룬 지 30년 만에 남편의 권유로 이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하루 중일 TV만 보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TV도 재미 없어지고 주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딘지 허전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화)

✚ 말씀으로 회개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내 가슴을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됨을 알고,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저의 가족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순우)

✚ 중헌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도 듣고 책도 읽어서 확실한 믿음을 얻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으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안에 좋은 일도 생겼고, 직장에서도 회복하고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소금과 빛이 되어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멀리멀리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박금주)

✚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써 저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를 것입니다. (김동우)

✚ 제부의 권유로 중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며,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직장생활로 힘들어서인지 일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갈 것인지 고민도 하지만, 일단 교회에 오면 예배시간이 너무 귀하고 기쁩니다. (박정혜)

✚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 한글, 봉사, 예배 등 주제별로 쉽게 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05	백기성	6	장년4부	백영자(2)
1506	이영일	14	장년1부	
1507	이대영	13	중등부	신동수(13)
1508	김지은	2	청년1부	
1509	김영신	22	청년2부	윤지원(1)
1510	김봉화	2	청년2부	한민교(24)
1511	이찬혁	22	대학부	김진주(22)
1512	한상규	11	청년2부	김달수(11)
1513	신준섭	6	청년1부	강성원(18)
1514	김종건	13	고등부	홍현기(24)
1515	최승민	2	고등부	정태훈(13)
1516	송희태	4	고등부	이찬홍(22)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늘 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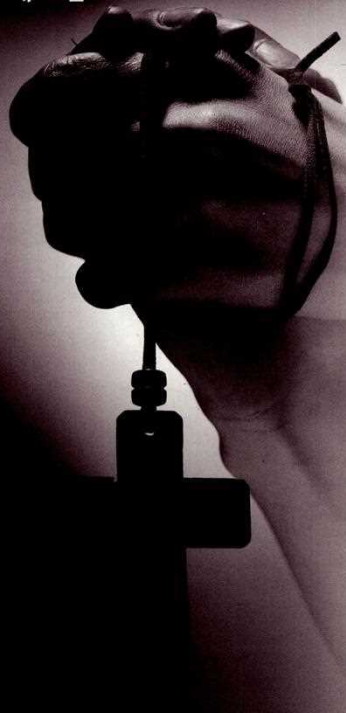
✚ 전에는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새롭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쓸모없지만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최은하)

✚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려 나오는 진심어린 심령으로 예수님만을 섬길 것을 소원해 봅니다. (조영진)

✚ 상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성적,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됨을 확실히 알고 더욱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박향옥)

✚ '왜! 교회를 다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있습니다. 1. 겸손하라. 2. 겸손하라. 3. 겸손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고 건강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남)

✚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결혼하면서부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이를 출산한 후로 저의 부부는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시간에 줄이, 장난을 해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가게 문을 닫고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저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미영)



Copyright © 2009 총회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